



즉시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환경부, 중기부		
담당	<총괄>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서영석, 서기관 이경수 (044-200-2056, 2057)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과장 이상로, 사무관 박종현 (044-200-2092, 2095)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과장 박연병, 사무관 송정아 (02-2100-3703, 3704)
	가습기 살균제 대책	국조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이화원, 사무관 송진성 (044-200-2365, 2352)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안세창, 사무관 장현정 (044-201-6750, 6762)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국조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과장 김성규, 사무관 김성오 (044-200-2221, 2223)
중기부 재기지원과		과장 이동원, 서기관 최은호 (042-481-1666, 6846)	

안전하고 차별없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 ▶ 주간근무 확대,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
- ▶ 위탁근로자 등 기본급 단가 및 복리후생비 등 현실화, 지자체 위탁업체 지도감독 강화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질환을 확대하고, 지급 절차를 간소화
- ▶ 화평법·화안법 시행('19.1월) 준비 철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 (참석) 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공정위원장, 기재부·교육부·고용부 차관, 금융위 사무처장,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과 「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방안」 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17.11월~'18.2월)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 ('17.11.16) 광주 남구, 수거작업을 하다 잠시 내린 사이 후진한 차량에 치여 사망
('17.11.29) 광주 서구, 매립장에서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
('18. 2.23) 서울 용산구,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장비에 끼여 사망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중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주간근무 원칙을 확대('18년 38% → '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시의 경우 '11년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사고율 43% 감소
- 또한,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가겠습니다.

②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하겠습니다.

- 또한,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행안부·환경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전문가 참여

③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환경미화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환복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근로자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주민, 환경미화원 간 적극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해 갈등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 (의왕시 우수사례) 간담회 개최, 무기명 건의함 운영, 단체 대화방을 통한 정보공유

- 이번에 마련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11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 중앙-지방간 협력체계(근무환경 개선 협의체)을 중심으로 이행상황도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환경부)

-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17.8.9) 1년을 계기로 그간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질환 확대)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구제급여 상당지원) 구제계정 신규 지원('18.하)

**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19.하)

- (지원서비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재발방지)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19.1.1)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중기부)

- 정부는 기업인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전적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재도전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 대책은 4대 분야 13개 과제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 정리 지원, △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 실패해도 괜찮아 문화 확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은 8월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 할 예정입니다.

- ※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계획

붙임 1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실행계획

추진시기	주요 추진과제	실행방안
[1단계] 우선 즉시	① 환경미화원작업안전 지침 마련	▶ 지자체·위탁업체·근로자 준수사항을 지침으로 마련·보급
	② 지자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교육(고용부) 등 지자체 이행 지원
	③ 지자체의 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이행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④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선	▶ '19년 예산편성방향에 환경미화원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재정투자 강화 내용 반영
[2단계] 12월까지	① 지자체 특별재정 지원	▶ 시·군·구 수요조사 후 휴게시설 개선 특별재정 지원
	② 지자체 재정투자 확대 유도	▶ 보통교부세 배분액 산정기준 개선 (폐기물 관련 수요 가중치 상향 조정)
	③ 안전기준 설정 및 매뉴얼 개선	▶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작업안전수칙 매뉴얼 개선 후 지자체·위탁업체 보급
	④ 기상상황별 작업기준 마련	▶ 환경미화원을 위한 기상상황별 작업 중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위탁업체 보급
[3단계] 내년까지	① 표준인력모델 마련 및 임금체계 개선	▶ 구·신도심, 농어촌 등 유형별 표준인력 모델 마련·보급 ▶ 임금은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선안 마련
	② 주간근무 원칙 확대 적용	▶ 개선방안 공문 시달 후,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컨설팅 지원 ※ 주간근무 전환 수범사례 등 전달·공유
	③ 고용형태 개선방안 등 검토	▶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고용부) 후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진방안 논의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지자체 추진과제 이행여부 점검·관리(~'19.4월)

붙임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 단계적 확대 계획

□ 기본 방향(2-track)

-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하되, 의학적 개연성이 높은 질환은 단계적으로 임상·독성 연구를 보완하여 구제급여로 상향 추진

□ 피해구제 대상 질환 단계적 확대 계획

- ('18년 하반기) ①성인간질성 폐질환, ②기관지 확장증, ③폐렴, ④독성간염, ⑤천식(구제급여 상당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
- ('19년 상반기) 임상·독성학적 연구를 보완하여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의 구제급여 상향 여부 검토
 -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실시하여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

	기준 ~'18.6	단기 '18下	중·장기	
			'19.上	'19.下
구제급여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아동간질성폐질환
				(모니터링 결과반영)
				독성간염 아동간질성폐질환
특별구제계정	아동간질성폐질환 폐질환(3단계)	아동간질성폐질환 폐질환(3단계)	아동간질성폐질환 폐질환(3단계)	아동간질성폐질환 폐질환(3단계)
		독성간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성인간질성폐질환 천식(상당지원)	독성간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성인간질성폐질환 천식(상당지원)	독성간염 폐렴 기관지확장증 성인간질성폐질환 천식(상당지원)
			비염 등 동반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기타질환/후유장애	기타질환/후유장애